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6:6-15

복음주의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은사주의에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날기 위해 두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듯,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와도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멪피스 펠로쉽교회 담임목사인 더그 배니스터는 복음주의자로 말씀 연구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자기 친구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멀찍이 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은사를 받은후 그의 목회와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섬과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비롯해 행위적인 신앙을 강조한 유대교적 가르침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돌면서 복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동역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행 15:36-40)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결별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선교사역에 동행시키는 문제였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의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였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잃더라도 일이 성취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사람들이 서로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안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니라” (행 16:6-7)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가고자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자 그는 무시아에서 더 바닷가 쪽인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로아에서 밤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8-9)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북부지방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앞에 순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행 16:10)

바울은 환상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Stop)고 할 때 멈추고, 가라(Go)고 할 때 갔습니다. 사실 가라(Go)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멈추라(Stop)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 Go 와 Stop 에 있습니다. 사울은 Stop 을 못했고, 다윗은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Stop 사인 앞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가고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Stop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점을 보는 것에 대한 수입이 끊어진 그 주인이 그들을 고발하였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을 극도로 경계했었습니다.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은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행 16:20)

그리고 그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행 16:22-24)

그런데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옷도 찢겨버린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것을 감옥안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5)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곳은 바로 ‘최상’의 예배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때, 그곳은 바로 ‘최상’의 예배장소가 될 것입니다.

2.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 16:26)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환경적인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던 문제의 차꼬가 활짝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행 16:27-30)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해서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간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 앞에 엎드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 16:31)

이 대답은 비단 간수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주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 성령충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공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Stop), 가라고 할 때 가는(Go)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2.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고 떠난 곳에서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가 실제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놓였다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 감옥안에서의 예배는 결국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결과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내 삶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다짐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